

대선 한 달, 변하지 않는 민주당에 곱지 않은 호남 민심

‘졌잘싸’에 어물쩍 넘어가려는 분위기에 분노 대선 패배 통렬한 반성, 혁신 없이 지방선거 행 “80% 넘게 표 몰아준 호남만 바보된 느낌” 푸념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호남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는 상실감이 큰 데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 때문인지, 뼈를 깎는 반성이나 혁신 없이 어물쩍 지방선거로 넘어가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는 지역민도 있다.

호남의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꽃놀이패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등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방선거 구도도 전환해 대선의 상흔을 지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이 남긴 상처는 크고도 깊다. 한 달 가까이 지났어도 어느 것 하나 아물어 정리된 게 없다. 석고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통렬한 반성과 혁신의 몸짓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저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호남 지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대선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

었는지, 뼈저린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0.73%포인트(24만7077표차)에 스스로 위호하는 분위기도 읽히지만 선거에서 진 것은 진 것이다. 광주에서 84.8%, 전남에서 86.1%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어도 정권을 내준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으로, 이재명 후보의 석패도 있지만 직선제 개헌 이후 유지돼 왔던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 깨졌다는 것을 짚는 이들이 많다.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보수진영에 정권을 내준 게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일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사태로 촉발된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의 정치, 비례위성정당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으로 나타난 원칙없는 보수정치가 화를 불렀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정권교체 요구와 맞물려 대선을 결정지은 것이다.

논의를 호남으로 좁혀보면, 민주당이 과연 지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대표적인 게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

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온 측면도 있지만, 평상시 지역민심과 괴리된 일당독주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역 공조력이 과연 기민하게 움직였는지도 의문이다. 그저 ‘청년 선대위’라는 허울만 내세웠을 뿐, 속으로는 자기 정치만 한 것은 아닌지 날선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안팎의 문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통렬한 반성은 없었다. 그 흔한 낙선인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입으로만 반성과 감사를 되뇌일 뿐 호남 지역민들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질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80% 넘게 표를 몰아준 호남만 바보된 느낌입니다. 그러다고 정권을 연장한 것도, 민주당 중심의 호남정치가 달라질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역민들의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80%대 물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극단의 양강 대결구도 속에서 제3의 선택지가 없었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반성이나 해법도 없이, 민주당의 시계는 이제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호남 내 일당독점의 기득권 속에서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경선이 곧 본선이다보니, 벌써부터 선거구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



지난 3월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시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당원들이 “민주당 각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주시당의 청년·여성특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표면화됐다. 음주운전 전력자 배제 등 공천률도 오락가락이다.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결정한 공관위원들의 명단이 이미 지역 정가에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겉으로는 시스템 공천, 혁신공천을 표방해 놓고도 온갖 경선잡음으로 흥역을 치렀던 지난 2020년 총선의 기시감이 느껴진다.

이게 다 일당독점의 정치 구도여서 가능한 일이다. 경쟁력 있는 상대 정당이나 제3의 세력이 있다면 과연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되풀이 할 수 있을까. 호남지역민들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광주·전남 사·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것인가’라고 묻는 광주경실련의 최근 성명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김재환기자

광주시, 산단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업체당 1250만원

올해 1억 원 예산 투입

광주시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노동자는 휴식권을 보장받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휴게 여건을 조성해 노동 인권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상생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진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단지 내 상시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가운데 공모와 심사를 거쳐 노동자 휴게시설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8곳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체에는 샤워, 냉·난방,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고 사업체 당 최대 1250만원이 지원된다.

양근수 시 노동협력관은 6일 “앞으로도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힘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가운데)이 6일 오후 하남혁신지원센터 내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방문해 세탁소 운영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쓰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 개발 나서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첨단 로봇 활용 물류 전단계 자동화 목표

전남도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기술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기술 개발사업은 신선농산물 유통·소비 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저장·수급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다. 올해 36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간 228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수확기가 다른 과수나 채소류를 대상으로 첨단 로봇을 이용해 선별부터 저장·포장·유통까지 물류 전단계 자동화 구현을 목표로 경북도와 함께 연구기관·학계·기업과 실증센터를 구축, 공동연구를 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대표 농산물이고 인력난이 심각한 시설 연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했고 실증센터를 지원할 지자체로 무안군이 참여한다.

연구 분야별로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경대학교와 아이디어시스템, 전남서남부채소농업협동조합이 공동 참여한다.

경북도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경북 안동시를 공동 연구 및 참여 지자체로 선정하고 사과, 배, 복숭아, 참외 자동화 선별시설 연구를 추진한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각각 연구한 작물별 표준화 데이터를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기반으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 시 스마트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도록 정책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 기술 개발사업이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산물 선별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최초로 첨단 로봇을 기반으로 한 물류·유통 자동화 기술을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선제 도입해 국내 스마트농업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채매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First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93,09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위	240,833원	1,140원	1.7배
4분위	125,531원	2,100원	2.1배
3분위	79,147원	4,800원	2.7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5.3배
1분위	26,697원	26,697원	1.0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립건강보험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